

간추린 소식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2023~2027) 확정

국토교통부는 도로구조가 취약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크거나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국도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말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2023~2027)」을 최종 확정하였다.

7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유형은 위험도로 개선, 교차로 개선, 단구간 개선, 입체횡단시설 설치, 버스정차시설 설치이다. 위험도로 개선은 급커브, 급경사 구간의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 차로폭이 협소한 구간의 확장 등이 필요한 사업을, 교차로 개선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 구간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회전교차로·입체교차로 설치, 국도 주변 진·출입을 위한 연결로 설치 등이 필요한 구간을 선정하였다. 단구간 개선은 차로수의 차이로 인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구간, 왕복 2차선 오르막 구간에서 지속차량으로 인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차로 신설이 필요한 구간 등을, 입체횡단시설 설치의 보행자가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 하부에 보행자 통로박스 설치, 도로 상부에 보행육교, 승강기 등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버스정차시설 설치의 마을 주민의 버스 승하차 편의를 위해 버스정차대, 버스정류장 등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였다. 🌱

▶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 현황

구분	합계	위험도로	병목지점				
			소계	교차로	단구간	입체 횡단시설	버스정차대
사업수 (개소)	512	140	372	308	35	6	23
사업비 (억원)	16,892	6,641	10,251	8,301	1,745	152	53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12.28) 내용을 발췌·정리함

용어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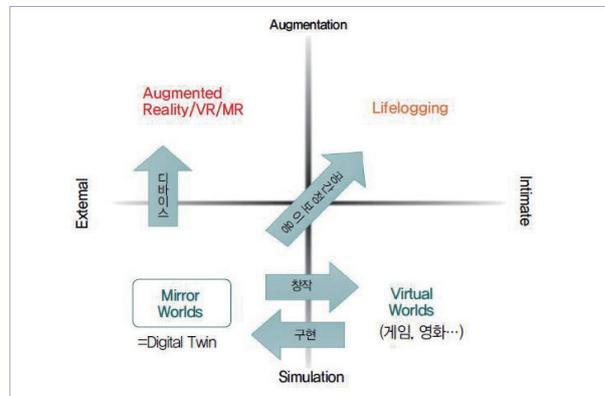


메타버스(Metaverse)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3차원의 가상세계를 말한다. 1992년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 크래시’에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IT 발달과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비영리연구재단인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2007)은 메타버스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라이프로그(Life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s), 가상세계(Virtual Worlds)로 분류하였다. 증강현실은 실제 세계에 3차원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며, 라이프로그는 일상적 경험 정보를 기록하는 일상의 디지털화라 할 수 있다. 거울세계란 현실세계를 사실적으로 재현한 디지털트윈이며, 가상세계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현실과 유사하거나 완전히 다른 세계를 구현한 시뮬레이션 환경이다. 🌱

▶ 메타버스 유형과 관계



자료: 김대중, 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국토 공간정보 정책, 월간국토 2022년 4월호(원자료: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2007, Metaverse Roadmap)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도로정책Brief의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메일링서비스를 통해 도로정책Brief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도로정책Brief 원고를 모집합니다.

도로 및 교통과 관련한 다양한 칼럼, 소식, 국내외 동향에 대한 여러분의 원고를 모집하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원고투고 및 주소변경 문의 : 044-960-0269

- 발행처 | 국토연구원 • 발행인 | 강현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 전화 | 044-960-0269 • 홈페이지 | www.krihs.re.kr

※ 도로정책Brief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토교통부나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